



‘보천교와 보천교인의 민족운동’ 학술회의가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 보천교의 민족운동 재조명한다

### 민족종교 보천교 학술회의 열려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조규태,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도와 정읍시가 후원하는 ‘보천교와 보천교인의 민족운동’ 학술회의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후 근대화를 지향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한 천도교와 달리 보수적 전통을 견지하고 활동한 보천교와 보천교인의 민족운동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성대 조규태 교수를 비롯한 8명의 발표자가 나서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학술적 자료를 제시하며 열띤 발표가 있었다.

한성대 조규태 교수는 ‘보천교의 성립과 그 민족운동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기독교, 천도

교 등을 중심으로 밝혀진 종교계 민족운동의 외연을 넓혀 보천교의 민족운동을 처음으로 조망했다. 조선총독부 등 일제에 의해 유사종교로 선전되어 민중을 기만하는 종교단체로 인식되었던 보천교와 대종교 등을 재조명하고, 민족종교적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천교가 1920년대 민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 신민부 등에 군자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는 발표도 있었다. 고창 북교의 안후상 교사는 1920년대 보천교의 ‘권총단 사건’을 통해 군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혔고, 수원대 박환 교수 역시 ‘1920년대 민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금과 보천교 김좌진과 보천교’를 통해 보천교가 독립운동단체에 군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재차 밝혔다. 이어 춘천대 김정인 교수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보천교의 강제 해산’이란 주제

의 발표로, 1920년대 활발한 종교활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보천교를 조선총독부가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과정과 이유를 심도 있게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윤소영 학술연구팀장의 ‘홍치교(熊池敎), 선도교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정음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의 ‘후천개벽운동과 보천교’, 중앙대 김철 교수의 ‘1920년대 보천교의 실력 양성운동’, 동국대 조성은 교사의 ‘1920년대 국내 언론을 통해 본 보천교의 종교적 특성’ 등의 보천교의 민족운동 활동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보천교의 종교적 특성과 민족적 성격, 보천교인의 다양한 항일투쟁과 민족운동, 보천교와 보천교인에 대한 일제 탄압의 실상과 그 배경을 밝혀보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 /정음=김대환 기자

## 고창지역 예술가 위한 창작전시회 토담 김광희 개인전 ‘그리움의 시간들’

### 10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서 열려

토담 김광희 작가가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그리움의 시간들’을 주제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의 김광희 작가를 닮은 아름다운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수채화 작품과 전통정보공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통정보공예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칠보장신구와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크기, 형태, 기법에 제한받지 않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김 작가는 고창문화원 수채화 강사, 한국현대 작가협회 운영위원,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악 이사, 불순갤러리 토담대표, 고창미술협회 지부장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광희 작가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품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빛나는 문화예술 수도로 활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고창군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에게 창작 동기 부여와 지역주민에게 미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문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 공개 재산 9억1816만원 중 개인예금 2억8258만원

정재숙(57) 문화재청 청장이 공개한 재산은 9억1816만원이다.

지난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정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총 9억1816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건물 2채)으로 총 5억2280만원이다. 정 청장은 건물 2채 모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억2150만원 상당의 서

울 중계동 라이프아파트 115.66㎡ 중 57.83㎡, 7980만원 상당의 서울 신당동 단독주택이다.

다음으로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예금이 많다. 총 4억8179만6000원 가운데 정 청장의 예금은 2억8258만6000원이다.

정 청장은 1억원이 넘는 채무도 신고했다. 총 1억1602만6000원이며 1억972만6000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금융기관 채무가 포함됐다. /뉴시스



‘다음웹툰 공모대전6’

## ‘다음웹툰 공모대전6’ 본선 순차적 공개

### 우수신인 작가선보이는 기회... 20일 최종 수상작 8편 선정 예정

다음웹툰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공동 주관하는 ‘다음웹툰 공모대전6’의 본선 작품을 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다음웹툰은 지난 8월 순경, 로맨스/액션, 판타지/드라마/공포, 스릴러/개그, 일상 등 총5개 장르별로 구분해 총850여개의 작품을 접수했다. 그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45개 작품을 대상으로 1,2화를 공개하고 예선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예선 독자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작 총 14편이 선정됐다.

본선진출작 14편은 현재 다음웹툰에서 요일별로 독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예선에 공개했던 1,2화에 이어 3,4화를 선보인다.

앞서 ▲26일 ‘곤룡포!’와 ‘이대로 멈출 수 없다’ ▲27일 ‘밤에 사는 소녀’와 ‘식귀’ ▲28일 ‘세트로닌’과 ‘조숙의 밋’ ▲29일 ‘UNFAIRE TIME’과 ‘호명’이 공개됐다. 이어 ▲30일 ‘육선녀 실종사건’과 ‘차피’ ▲12월1일 ‘나만 아는 사람’과 ‘조류공포증’ ▲12월2일 ‘Break Drawing’과 ‘판타스틱 시니어’

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웹툰은 추천수 등 독자 반응을 참고한 최종 심사를 통해 12월20일 최종 수상작 8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 8명(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에게는 총3500만원의 상금, 아이패드 부상, 다음웹툰 정식 연재 기회가 주어진다.

다음웹툰 측은 “기존에 공모전 페이지 내에서 본선 독자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독자들에게 공모대전 본선 진출작들을 선보이고 좋은 작품을 대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식연재작들과 동일하게 연재시간표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웹툰 공모대전’은 지난 2013년부터 첫 선보여 올해 6회를 맞았다. 그동안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사자토끼)’, ‘작약만가(인토르노)’, ‘프레너미(돌식)’ 등의 수상작을 배출한 바 있다. 특히 1회 당선작인 ‘부암동 복수자 소셜클럽(사자토끼)’는 지난해 10월 드라마로도 제작돼 인기리에 중영, 공모대전 수상작의 영상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뉴시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